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야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 백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삼만 육천 일이 그 아니 보잘것없는가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어니 사생(死生)을 정할쏘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 공산 백골이 그 아니 느껴우냐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死日)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중략)

어와 그 뉘신고 어떠한 사람인고

형용이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굴원이신가

잔흔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눈썹을 찡그리시니 근심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바라는고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 해 질 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있어서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영락(榮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재천(在天)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

천생만물(天生萬物)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大道)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

송아지 어미 좇아 녹음 간에 절로 놓여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곤 쯤대 삶은 쯤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 같은 여름 벌에 큰 쟁기 마주 매여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작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犧牲)\*만 할까마는

헌 명석 물리치고 비단 거적 가로 덮고

밭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엮어내어

예관(禮官)이 고삐 들고 태묘(太廟)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 임유후, 「목동가」 —

\* 형용이 ~ 유자후이신가: 굴원, 유자후는 귀양 가서 세상을 걱정하다가 죽은, 중국의 옛 문인임.

\* 희생: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나)

홍진(紅塵)의 꿈 깬 지 이십 년이 어제로다

㉠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이 되어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려 우노라

<제2수>

㉡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을 두려워할까

㉢ 일산(一山) 풍월(風月)에 즐거움이 가이 없다

내 마다\*, 뜯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면 고반(考槃)\*을 즐겨 하니

맑은 송풍(松風) 산월(山月)이사 나뿐인가 하노라

<제12수>

— 장경세, 「강호연군가」 —

\* 내 마다: 나는 싫구나.

\* 득군행도: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함.

\*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 된다.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가려울 때에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어찌 이렇게 커졌나? 살아 있을 때는 나는 나, 남은 남으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함께 하나로 돌아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옛 현인은 죽음을 참이라 여기고 삶을 거짓이라 여겼는데, 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는 잠깐도 몇 달 같지만,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잊는다. 힘들어 쉬려 할 때는 지척도 천 리 같지만, 편안해지면 쉬는 것을 잊는다. 이를 통해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예나 치욕도 바깥의 상황일 뿐이니 시장 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영예롭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땡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요절한 이를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은 본래 하나였는데 몸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단절되었다.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 정신은 내부에 갇혀,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마침내 이기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좋고 싫음에 따라 서로 빼앗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서로 공격하여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되었으니 참 측은한 일이다. 이 기심을 극복하면 몸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순리대로 하면 정신이 갇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어 만물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고 삶과 죽음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북극의 아래와 남극의 위가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동해의 서쪽과 남해의 북쪽이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혼돈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내가 죽은 뒤 세상의 종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인가. 하늘과 땅은 무궁하고 과거와 현재는 다함이 없으니,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몸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티끌이나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요, 부싯돌 불이나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다.

— 장유, 「방언」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마음을 부각한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여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 준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두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한다.
- ④ (가)~(다)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 ⑤ (가)~(다)는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는 ‘소 먹이는 저 아이야’ 하고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화자와 그에게 ‘어와 그 뉘신고’라고 말하며 답변하는 화자가 등장하여 두 화자의 목소리로 시상이 전개된다. 작품은 화자가 달라지는 ‘어와 그 뉘신고’라는 구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의 ‘묻는 노래’와 후반부의 ‘답하는 노래’로 나뉜다.

- ① ‘장수 단명이 운명’이라는 말과 ‘영락은 운수에 달렸’다는 말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두 화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아름다운 이름을’ ‘영구히 전하’려고 한다는 말에 ‘천생만물 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삶에 대한 두 화자의 관점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③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상대가 근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우리는 어리석어 태도를 몰라’라고 답변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여 상대방에게 배우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⑤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생활 경험에 근거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0. (나)의 ‘나’의 관점에서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을 모두 멀리해야 하는 때도 있다.
- ② ㉠에서 생겨나는 ㉡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 ③ ㉠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을 즐겨야 하는 때도 있다.
- ④ ㉡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하고 ㉠의 성취에 뜻을 두어야 한다.
- ⑤ ㉡이 주는 즐거움을 누린 후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 욕망을 드러낸다.
- ③ ㉢: 임과 이별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 ④ ㉠: 속세를 잊고 근심 없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대부 문인들은 문학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형상화했다. 벼슬길에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관인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을 긍정하기도 하며,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삶을 지향하기도 했다.

- ① (가)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대장부의 할 일이라’에서 화자는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② (가)의 ‘뻐마디가 흠어지니’, ‘어느 소 되려 할꼬’에서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의 ‘뜯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④ (나)의 ‘맑은 송풍 산월이사 나쁜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며 처사의 삶을 긍정하고 있군.
- ⑤ (다)의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에서 글쓴이는 삶의 찰나적 속성을 강조하며 삶의 욕망에 초연한 삶을 지향하고 있군.

2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영예나 치욕’으로 여기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혀 ‘바깥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사람들이 ‘팽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절한 이를 슬퍼하’는 것은 ‘몸이 장애물이 되어’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③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된 것은 사람의 정신이 그 몸에 얽매어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순리대로 하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히지 않아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⑤ ‘무궁’한 세상과 ‘다함이 없’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기심’이 부질없는 것은 몸이 ‘터럭보다 더 작은 존재’이고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움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

(나)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 푸른 뗏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표현으로 현장감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의 ‘나’는 팽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 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며,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과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에서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와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가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땀을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땀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여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 입에서 그 집을 사자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달갑잖은 표정이었다. 직접 가서 집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로 표정이었고, 형 역시 못마땅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다. 여러 해를 여기 저기 잠깐씩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가 살던**, 크고 좋은 집은 아버지 친구 되는 사람한테 어처구니없이 빼앗겨 버렸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아버지의 고향 친구 심 씨였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한참 빚쟁이들한테 물리고 있을 때 그 심 씨가 나타나서 묘책을 일러 주었다. 친구의 권고에 따라 아버지는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내주었다. 집을 심 씨의 소유로 위장하여 그거라도 건져 보자는 속셈이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충고해 주는 고향 친구가 아버지한테는 친형제만큼이나 살가웠을 것이다. 도장을 넘겨주면서 아버지는 심 씨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했다. 심 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다.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괜히 한번 그래 보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그냥 실실 웃어넘기려 했다. 그런데 심 씨의 얼굴에서는 끝내 웃음을 찾을 수 없었다. 나중엔 화를 버럭 내면서, 집달리\*를 데려온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면서 대변에 울음을 터뜨렸고, 형은 몸집이 큰 심 씨의 아랫도리에 찰거머리처럼 늘어붙어 도나캐나 주먹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삿짐을 꾸리느라고 온통 수라장이 된 집 안을 둘러보며 ㉠ **넋 나간**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옆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고향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후로 **셋방**을 찾아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그런 표정은 줄곧 눈에 띄었다. 우리가 주인집 아이들이라도 때려 말썽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셋방살이에 아주 넉넉머리가 나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집이 좀 차해도 아무려면 내 집인데 셋방보다야 못할까 -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아버지의 의사에 굽혀 그 집을 사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대로 팔래**를 낼 수 있고,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어다** 먹어도 괜찮게 되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좀 늦게 돌아와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안심하고 대문을 팡팡 두들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소란을 피운다고 날 곳은 날 밖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동네 아이들 아무하고나 **대동한** 위

치에서 맞붙어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게** 된 그 점이 었다. 허약하게 생긴 녀석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텃세를 하고 코앞에서 쥐새끼처럼 용용거리는데도 상대가 주인집 아들이기 때문에 꼭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셋방 신세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정말 오랜만에 **온채를 차지하고 살게** 되어 판잣집의 허술한 외양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우리는 꽤나 들뜬 상태에 있었고,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하는 여유마저도 생겼다.

[중략 부분 줄거리] 판잣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은 이웃과 철거를 막으려 하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아까부터 자기 눈앞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표정으로 오직 아버지 행동 하나만을 주목하고 있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아버지는 그 판국에 시장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슬금슬금 꿈무니를 빼 버렸다. 그러나 뒤돌아서면서도 아버지는 배신자한테나 던지는 저 살벌한 눈초리를 뒤통수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기대가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순식간에 변하는 ㉡ **형의 표정**을 못 읽었을 리 없다. 마침내 형이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었다. 형은 대뜸 작업 지휘자를 붙잡고, 자기가 허락하기 전엔 그 누구도 집을 부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린애를 상대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형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길을 막는** 데야 그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했다. 큰 권한을 쥔 어른과 거기에 맞선 어린애 사이에 곧 열면 ㉢ **논쟁**이 벌어졌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남의 집을 함부로 헐으려 하느냐고 형이 물었다. 나라의 명령이라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책임자가 대답했다. 곁에서 보면 반쯤은 **농담으로 들리는 대화**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게** 진지했다. 나라에서는 왜 당신네들 집은 가만 놔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집만 부수라고 명령했는지 어디 한번 설명해 보라. 그건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이 대개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을 부수는 건 잘못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집을 못 짓게 하든가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미리 막을 일이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나라에서는 진작부터 그런 일을 못 하게 해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해 나왔으면 어째서 여기에 집이 서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집을 샀겠느냐. 시간이 없다. 그런 문제라면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나는 다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자기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이답에 커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날이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집부터 부수라고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 당신도 조심해라. 네가 커서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빌어 주겠다.

논쟁은 끝났다. **손을 번쩍 들어** 작업 책임자는 마을 초입에 있는 우리 집을 첫 번째로 가리켰다. 저마다 기다란 쇠사슬과 갈고리, 해머 같은 걸 하나씩 움켜쥔 인부들이 우리 집으로 우우 몰려갔다. 그들을 앞질러 형이 먼저 달려가서는 기둥에다 팍성냥을 드욱 그어 들며 불을 지르겠다고 날뛰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 손으로 태워 버리는 게 낫겠다고, 어서 집에 불을 댕기라고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다. 그러자 형이 별안간 얌전해졌다. 형은 뜨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성냥불이 손끝까지 타들어 가는데도 형은

그걸 그냥 손에 쥔 채 어머니 얼굴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형의 입에서 느닷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를 같이하여 인부들도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 작업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자꾸만 이상한 몸짓을 보였다. 인부들이 해머로 벽을 팡팡 때리면 어머니는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면서 애구구, 하고 비명을 올렸다. 어떤 인부가 갈고리를 들어 지붕을 찢는 걸 보고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안은 채 눈을 꼭 감아 버렸다.

— 윤홍길, 「집」 —

\* 집달리: 집행관의 옛 용어.

27.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추측을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족들이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 ② ㉡은 문제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
- ③ ㉢은 상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낸다.
- ④ ㉠과 ㉡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에서 비롯한다.
- ⑤ ㉡은 형이 아버지에게, ㉢은 형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실망감에서 비롯한다.

2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업 지휘자에게 ‘달라붙어 길을 막는’ 형의 행동은 ㉠로 이어진다.
- ② ㉠에서 ‘농담으로 들리는 대화’를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게 진지’하게 한 것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 ③ ㉠에서 서로 ‘몰라서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라고 작업 지휘자가 말한 것은 ㉠을 통해 그와 형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⑤ 작업 지휘자가 ‘손을 번쩍 들어’ 우리 집을 가리킨 것은 ㉠을 통해 형이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얻기를 바란다. 집의 의미는 사람이 집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양해서, 어떤 이에게 집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자신과 동일시되며 때로는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① 고향 친구를 숙여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은 것에서 심 씨에게 ‘우리가 살던’ 집이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집을 산 이후 ‘마음대로 빨래를 널’고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어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집을 산 이후 동네 아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집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온채를 차지하고 살게’ 된 후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셋방’에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인부들이 해머로 우리 집의 ‘벽을 팡팡 때’릴 때 어머니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며 ‘비명을 올’리는 것에서 어머니에게 집이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 승상의 죽음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소저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 해야겠습니까?”

주 씨가 말하였다.

“㉢ 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십시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 의리를 지키리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용현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 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었는가? 만일 계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지락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청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 내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계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아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계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혼할 곳이 없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계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소의 글을 보고 의양 군주는 계일지를 사윗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하나 순직소는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 가니 의양 군주는 혼사가 지연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계일지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일부러 청병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한번 보기를 계속 재촉하였다.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계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주 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입어 ㉦ 남장을 한 후 의양 군주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 군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는 취향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청하여 먼저 앉게 하였다. 그리고 시비로 하여금 주렴을 가져다가 중당을 가려 막게 하고는 모든 시비들이 의양 군주를 옹위하여 발 안으로 들어왔다. 남장을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러 하다가 두 번 절을 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가 발 안쪽에서 답례하였다. 의양 군주가 발 안에서 남장을 한 순직소를 계일지로 알고 그를 보니 백옥과 명주처럼 광채가 사면에 비추었다. 의양 군주가 크게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미남자가 있는가? 설유란의 배필이로다.’라고 생각하고는 유모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 작자 미상, 「홍백화전」 —

3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직소는 부친이 죽음은 면하였으나 변방에 가게 된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
- ② 부친은 여 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계씨 집안과 맺은 정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주 씨는 계일지와 순직소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순직소에게 부친의 뜻을 따를 것을 권한다.
- ④ 부친은 여씨 집안과의 혼사가 불가피한 일임을 언급하며 순직소에게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
- ⑤ 주 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순직소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앵앵의 이야기를 들어 위로의 말을 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설유란이 정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② ㉠은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의 병을 감추려고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을 의심하여 의양 군주는 주렴으로 중당을 가린 채 순직소를 맞이했다.
- ④ ㉠을 통해 의양 군주를 만난 결과 설유란에 대한 순직소의 생각이 바뀌었다.
- ⑤ ㉠을 결정한 것에는 계일지를 직접 보기 원하는 의양 군주의 거듭된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33.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계일지의 능력에 대한 주 씨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다.
- ② ㉡: 상대의 말을 듣고 혼인의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낸다.
- ③ ㉢: 계일지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드러낸다.
- ④ ㉠: 계일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드러낸다.
- ⑤ ㉢: 자신이 설유란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홍백화전」에서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자식 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등을 동기로 행동하거나, 이를 타당한 명분이나 근거로 삼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한다.

- ① ‘부친의 명을 따’르자는 주 씨의 말에 수긍했지만 ‘간장이 끓어지는 듯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 된 도리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부친이 ‘사생의 기로에’ 있는데 ‘혼사를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 된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에서 순직소는 타당한 명분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바꾸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식 된 도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